

---

# 투자심사위원회 회의록

---

2024. 3.

기 획 조 정 실  
(재 정 담 당 관)

# 2024년 수시(3월) 투자심사위원회 회의록

## 〈 회의개요 〉

- 회의명 : 2024년 수시(3월) 투자심사위원회 본위원회
- 일시 : 2024. 3. 29.(금) 15:00
- 장소 : 신청사 5층 회의실
- 참석 : 12명(내부위원 3, 외부위원 9)
  - 내부(3) : 재정기획관, 예산담당관, 기술심사담당관
  - 외부(9) : 강륜아, 김성후, 김태양, 이선혜, 차한솔, 채재은, 홍상연 위원
- 안건 : (심사) 불광천 벚꽃축제 '은평의 봄' 등 2건  
(보고) 은평병원 현대화(리모델링) 사업계획 변경 보고
- 심의결과 : 걱정 1건, 조건부 추진 1건

【15시 00분, 개회】

### 1. 불광천 벚꽃축제 '은평의 봄'

( 사업부서 입장 및 설명 )

#### ○ ○ ○ ○ 위원

- 아까 안전관리 말씀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 ○ 사업부서

- 저희가 다음 주에 벚꽃이 개화가 만발할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벚꽃이 개화가 되고 무대 공연을 펼쳤는데, 그럼에도

도 불구하고 많은 인파가 몰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제일 신경 쓰는 부분은 인파가 몰렸을 때 쏠림이나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무대 끝에 벤치를 한 30개 정도로 이렇게 설치를 했고요. 어제 서부경찰서하고 최종 협의를 본 게 2시간 정도 상황이 안 좋을 경우에는 교통통제를 좀 해달라, 이렇게 협조를 지금 얻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본적으로 라바콘이나 안전펜스를 쳐서 좌우 통행이 기본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따른 사고 발생을 대비해서 구급차, 소방차 이런 것들을 다 지금 배치를 시키기로 결정을 해놨습니다.

#### ○ ○○○ 위원

- 기본적인 것들 외에도 요즘은 하도 민감한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몇 년째 계속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대표브랜드로서 성장할 수 있는 어떤 전략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냥 너무나 루틴적인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것에 대한 방안. 그다음에 홍보방안 역시도 아마 타깃이 그러실 것 같아서 그런 것이기는 한 것 같은데, 홍보방안도 조금 더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온라인 쪽 고려해서.

#### ○ 사업부서

- 사실 저희 축제 같은 경우는 개별 벚꽃축제로만 SNS를 따로 운영을 하고 있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불광천 벚꽃축제에 대한 아카이빙도 좀 안 되는 부분들도 있고, 또 원채널이 필요하다 고생각해서 저희가 이번에는 ‘블라썸 은평’이라는 인스타를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아카이빙 하고, 좀 더 온라인 홍보 강화하는 방안으로 올해는 그렇게 새롭게 시도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브랜드축제로서는 사실 벚꽃이라는 자연이 주는 특화가 굉장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벚꽃 개화시기에 저희가 축제를 하면서 지역상권 활성화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지역에서는 상인분들께서 매년 벚꽃축제만 같았으면 좋겠다고 할 정도여서 그런 걸로 브랜드화가 저희는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 지금 벚꽃축제 같은 경우는 은평구에서는 대표축제로 자리잡았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 위원장

- 저도 위원 중에 한 사람이라서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사실은 서울시의 대표적인 벚꽃축제, 지역축제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어찌 보면 매년 계획도 수립하시지만 중장기 계획을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브랜드도 있고, 연차적으로 봤을 때 어떤 테마를 가지고 발전을 시킬 것인가, 이런 고민들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중장기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 사업부서

- 벚꽃축제는 저희가 외부 관광객 유입이 사실은 가장 큰 목적이예요. 그래서 전통이라든가, 7080 혹은 락, 이런 식으로 서울의 여러 축제들이 주로 테마가 있는 걸 알고는 있지만 저희는 지역에서 유명한 가수분들이라든지 어떤 큰 오케스트라의 공연이라든지 그런 것을 접할 기회들이 은평구가 많이 있지 않으니깐, 그래서 은평구의 불광천 벚꽃축제는 그날에는 그래도 유명 가수분들을 초청해서 공연을 보면서, 작년 같은 경우는 초청 가수 공연 말고도 금난새 오케스트라 공연도 함께 했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아니면 발레라든지. 그러니까 지역에서 좀 외부로 나가서 뭔가 유료 티켓해서 볼 수 있는 공연들을 은평구에서 방구석 1열로 볼 수 있도록 저희가 제공해 주고, 또 그걸로 홍보해서 외부에서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와서 불광천, 은평구를 알리고 지역경제 활성화하는 게 저희는 가장 큰 목표여서 일단은 그런 식으로 장기적으로 관람객 유입에 목적을 두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 혹시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 ○○○ 위원

- 작년 한 것을 보니까, '23년도 행사를 보니까 2억 정도였던 것 같아요. 2.6억인데 올해 이번에는 4억으로 바뀌었는데, 바뀔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청가수도 있고 해서 그럴 것은 같은데 혹시 뭐 특별한 사유가 조금 더 있거나 그런가요?

○ 사업부서

- 저도 이번 1월 달에 문화관광과장으로 처음 왔고요, 이 벚꽃축제는 처음

접해보는데, 제가 알기로는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를 들어서 구비 예산으로 문화예술경연대회 이런 걸로 해서 한 6천만 원이 편성돼 있었고요. 그다음에 지역상권 활성화 해서 이런 예산으로 한 4천만 원이 편성돼 있었고. 그다음에 거리예술 지원사업으로 해서 별도로 2천만 원. 약 1억 정도가 편성이 됐었는데 저희 은평구가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재정자립도가 25개 자치구 중에 23위입니다. 약 18% 정도 되는데 자립도도 그렇고, 재정력지수도 타 자치구에 비해서 현저하게 낮거든요. 그래서 예산 편성 시에 행사성 경비를 많이 줄였습니다. 저희 부서만 약 9억이 전년 대비해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최소한 전년도 수준의 벚꽃축제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서울시, 우리 사업부서하고 작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많이 협의를 했었고요, 또 내부적으로는 우리 시의원들 통해서 예산 확보에 주력을 했습니다.

○ 위원장

- 혹시 다른 위원님 있으십니까?

○ ○○○ 위원

- 상권활성화 부분도 구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개선이 좀 쉽지 않은 것 같은데 경제적 효과에 대한 대략의 규모라든가 이런 데에 대한 논의는 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 사업부서

- 사실 불광천에 지금 문화인프라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잘 조성되어 있었고, 작년 한 해 동안 저희가 불광천에서 문화쉼터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 서울시 수변 감성도시 사업이 거기서 이루어지고 있고, 저희가 진행 중에 있는 사업이 굉장히 많지만 현재 이 모습을 갖춘 게 작년 정도여서 저희가 이런 인프라가 지역상권 신장에 몇 %를 기여했다라는 그런 정확한 데이터는 사실 지금 현재로서는 구하기가 좀 힘들어서 저희가 아직 없고.

하지만 주변 상가들이나 그 지역, 거기가 응암동 구역이라는 말이에요. 응암동 지역들에서 계속 홍보를 하다 보니까 계속 다니면서 상인들과 얘기를 하다 보면 굉장히 호응이 좋고 '경제가 활성화되고 있다는 걸 확실

히 체감한다. 특히 벚꽃축제 기간이라든지 그럴 때 활성화되고 있다는 걸 체감한다.’ 그리고 조금 떨어져 있는 다른 지역에서는 불광천이 점점 그렇게 그런 인프라가 확대돼서 비슷한 컨디션으로 다 조성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욕구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게 분명히 효과가 없는 건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 위원

- 행사 후에라도 그런 효과들 꼭 수량적인 부분이 아니더라도 질적으로 구 웹사이트라든가 이런 데에 홍보를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 위원장

- 그럼 지금 위원님들 질의 없으시면 공공투자관리센터의 타당성 검토 결과 이것은 행사성 축제라서 없는 거죠?  
좋습니다. 그러면 추가 질의 없으시면 사업부서 설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됩니다.

( 사업부서 퇴장 )

○ 위원장

- 이제 저희가 심사 결과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어떤 의견이 있으신가요?

○ ○○○ 위원

-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건 좀 부연설명을 드리면 원래 다음 주에 이 축제가 계획이 돼 있는데 그것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실 것 같아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문화본부에 축제 관련된 예산이 포괄성인 예산이 있는데 거기에 공모로 이 사업이 탄 거예요. 따서 아까 1억 8천인가 이것은 투심 대상은 아닙니다. 투심 대상은 아닌데 자치구비를 붙여서 하다 보니까 3억이 넘었기 때문에 투심 대상이 돼서 투심을 의뢰를 한 것이고. 그렇게 되면 저희가 4월 12일이나 뒤로 투심을 하게 되면 시기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긴급하게 하는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자치구에서 일부러 그렇게 한 것은 아닌 거죠. 간혹 그

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안은 약간 좀 특수한 상황인 거죠.

○ 위원장

- 그래서 저희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걱정, 조건부 추진, 재검토, 부적정 중에 이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의견이 없어서 혹시 걱정으로 가도 될까요?

○ 위원 다수

- 네.

○ 위원장

- 그럼 걱정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2. 리버버스 등 수상교통 선착장 조성

( 사업부서 입장 및 설명 )

○ ○○○ 위원

- 일단 이게 투자심사가 한 번 완료됐던 사업이고 세부 변경이라 저는 개인적인 큰 의견은 없었고요.

기존에 조건부로 달려 있던 것들도 대부분 이번에 보완이 되신 것 같아서 그렇기는 한데, 저는 하나 궁금한 게 접근체계에 대한 얘기가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고수부지의 거리가 있다 보니까 선착장에서부터 지상으로 제방 바깥쪽으로 나오는 데까지 거리가 좀 있습니다. 반면에 건축물을 설치하기가 좀 어려운 문제가 있을 텐데, 접근방향을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한번 여쭙보고 싶습니다.

○ 사업부서

-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총 7개 선착장 중에 여의도와 옥수와 뚝섬은 지하철역과 가깝습니다. 매우 가까워서 지하철역에서 내려서 5분 이내에 선착장으로 바로 도보로 가능하고요. 마곡과 망원과 잠원, 잠실은 지하철역에서 10분 이상 걸어야 되는 단점이 있어서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가 버스노선을 신설하거나 조정을 통해서 선착장 안까지 들어오거나, 그러니까 나들목 안까지 들어오거나 나들목 바로 앞까지 해서 다 도보로 5분 이내에 접근 가능하도록 지금 버스노선에 대한 신설과 조정계획을 저희 교통실의 버스정책과와 협의해서 수립을 했습니다.

또한 저희가 따릉이라든가 자전거에 대한 이용객들 수요도 많다고 판단이 되고, 그 시민들이 자전거와 따릉이를 타고 바로 리버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선착장 주변에 따릉이 거치대, 그리고 일반 자전거 거치대도 지금 계획에 반영했구요. 이런 것들을 내용을 다 지금 반영을 해서 설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 위원장

- 그다음 위원님.

○ ○○○ 위원

- 사실은 저도 비슷한 의견이 있었는데 대부분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그래도 저희는 그 보고서 안에서는 그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저도 그 선착장 위치 주변들을 잘 아는 편인데 사실 접근성이 굉장히 낮아요. 그리고 이게 여의도, 또 여의나루역이 5분 거리라고 하지만 단차가 존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사실은 그것을 타고 왔다는 얘기는 지하철역을 가기 위해서 온 게 아니고 업무지구까지 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접근성은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이 그래도 좀 성공을 하려면 사실은 저희 어려운 점이 수요분석인데 이것은 수요의 변동성이 굉장히 클 수 있는 사업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그래도 안정적으로 되려면 접근체계에 대한 것은 명확히 돼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경제성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운영 수입에 대한 것을 경제성 분석에 포함은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투자심사에서 제가 조금 헛갈리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재무 타당에는 그게 들어가는데 경제적 타당성을 따질 때는 사회적 편익이기 때문에 운영 수입을 포함하지는 저는 앓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건 한번 체크를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사업부서

- 접근성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고민이 많은 부분입니다. 오늘 두 분 말씀하셨는데 두 분 다 얘기하실 정도로, 그리고 언론이나 우리 시의회에서도 굉장히 우려가 많은 부분이고, 저희도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물론 한강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구조적인 한계들이 있고, 그 안에서 버스도 지금 신설을 해서 최대한 선착장까지 가까이 갈 수 있을 만큼 최대한 붙이는 걸로 지금 해서 어떻게든 시민분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지금 하고 있고요.

저희가 기대하는 바는 다른 대중교통하고 다르게 리버버스는 자전거를 굉장히 잘 연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자전거를 바로 들고 타서 세우고 앉아 있다가 내릴 때 들고 바로 내리고, 이게 굉장히 지금 잘 돼 있고. 그 다음에 따릉이도 저희가 지금 현재는 최대한 30대 정도 선착장 바로 앞쪽에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은 수립을 해봤는데 필요하면 더 추가로 투입할 수 있는 공간적인 여지는 충분히 있어 보이고요. 그래서 자전거하고 잘 연계가 됐으면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어쨌든 저희가 지금 현재는 도보나 자전거나 대중교통이나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접근성을 최대한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방안을 마련해가고, 앞으로도 진행 운영을 하면서 또 꾸준히 보완해 가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말씀하셨던 B/C 분석할 때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제가 아는 범위에서 답변을 드리면 일단은 이게 선착장 조성에 대한 부분이고, 선착장 조성에 따라서 배들이 다닐 수 있기 때문에 그 배를 이용하는 분들의 교통적인 편익과 그다음에 또 관광목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의 편익 정도만 지금 반영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외에 사실 배를 운영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인건비나 이런 건 운영에 따른 부분은 별도사업이라고 봐서 그런 부대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은 여기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는데, 저희가 이 자료를 정리를 할 때는 그런 정도의 관점을 가지고 정리를 했었습니다.

○ ○○○ 위원

- 그러면 사실은 수요분석을 보니까 일반적인 교통보다는 관광목적의 이용이 조금 더 많은 걸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사실 관광적인 측면에서 어떻

게 활성화할지, 그 계획이 또 중요할 것 같아요.

○ 사업부서

- 네, 맞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관광 프로그램들하고 연계계획도 마련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다음에 또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오시는 분들도 여기가 한 번쯤은 서울에 오면 꼭 방문해야 할 그런 장소로 인식될 수 있도록 각종 외국인들한테 편리한 요금체계라든가, 1일권이라든가 3일권 이런 것들도 지금 다양한 그런 것들도 만들고. 그다음에 선착장 주변에 있는 여러 관광지들하고 연계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도 앞으로 만들어 갈 계획입니다.

○ 사업부서

- 참고로 관광상품 개발을 위해서 저희가 서울시에 관광진흥재단도 있고요. 그래서 한 차례 설명회도 가졌었고요. 그래서 관광업계와 서울시 관계부서하고 같이 관광 연계 상품 개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 혹시 위원님들 중에 또 질의하시겠습니까?

○ ○○○ 위원

- 관광 얘기 나오셨으니까 혹시 홍보 관련해서의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게 있으실까요?

○ 사업부서

- 홍보도 역시 저희 서울시 차원에서 홍보담당관이 있고요. 거기와 한 두 차례 정도 실무협의를 가졌는데, 결국은 오프라인과 온라인과 여러 매체를 이용한 다양한 홍보계획을 지금 논의 중에 있고. 그래서 한 5월부터 7월까지의 초기에 관심 유도에 대한 홍보를 지금 계획하고 있고, 7월부터 운항하기 시작하는 한 10월까지 집중적으로 여러 가지 이벤트와 함께 다양한 매체들에 대한 홍보계획을 협의를 했고 지금 계획을 수립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정에 맞게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 위원

- 실제 운영은 누가 하게 되는 거죠?

○ 사업부서

- 이 운영은 저희가 작년에 공모를 통해서 민간 사업자를 선정을 했고요. 주식회사 이크루즈라는 지금 현재 한강에서 30년 동안 유람선을 운영한 업체고요. 그 이크루즈와 함께 저희 SH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가 함께. 사실은 선착장도 그렇고 리버버스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단순한 선박이 아니라 대중교통으로서의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공공성 확보 차원에서 SH의 참여도 논의 끝에 시의회 의결과 이런 절차를 통해서 참여하게 돼서 이크루즈와 SH가 함께 하는 합작회사를 통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 ○○○ 위원

- 그렇다고 하면 이걸 좀 나중에 일하기는 하지만 거기에도 많은 인력들이 또 필요할 텐데 그게 공공일자리하고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은 있는 건지. 또 그리고 사실 관광목적도 있다면 소프트웨어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 그걸 안내하는 사람들에 대한 트레이닝이나 이런 걸 국제적인 수준으로 올려야 될 텐데 이런 것들도 민간업자한테 그냥 맡겨서 할 수 있는 건지. 이런 것도 좀 의문이 들어서 시 차원에서 국제적 안목 가지고 어차피 합작을 하신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 사업부서

- 네,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 위원장

- 혹시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그럼 의견 없으시면 사업부서께서는 퇴장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사업부서

- 수고하셨습니다.

( 사업부서 퇴장 )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타당성 검토 결과 보고 )

○ 위원장

- 혹시 더 궁금하신 사항 없으시면 저희가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약간 변경을 해서 다시 들어온 건인데요 아까 설명 들으신 것처럼 저희가 걱정을 하느냐, 조건부 걱정을 할 것이냐, 그 부분을 가지고 고민을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만약에 조건부 걱정을 하면서 말씀하신 조건을 달았을 때 추진할 때 문제가 있나요?

○ 간사

- 아니요. 조건 다시면 됩니다.

○ 위원장

- 아까 얘기한 의견들이 있으셔서. 그러면 조건부 추진을 하되 아까 말씀하신 관광사업과의 연계, 그다음에 접근성 개선을 위한 계획 추가. 또 있을까요?

○ ○○○ 위원

- 접근성도 보면 버스 연계 이런 정도라서, 제가 보기에 영유아, 장애인, 어르신 이 비중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면 휠체어 액세스가 확실히 되어 되고, 그야말로 휠체어 액세스를 위해서는 10m, 20m만 해결이 안 돼도 그게 너무 스트레스잖아요. 그래서 그런 디테일까지가 들어갈지.

○ 위원장

- 아마 법적으로 휠체어 부분, 장애인 접근은 어느 정도 노력은 하실 텐데 문제는 거기까지 도달하는 게 지금 다들 고민이신 거예요. 자전거를 못 타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들, 그런 걸 장애라고 꼭 할 수는 없는데 다양한 분들이 접근하실 수 있도록 접근성 개선하는 부분, 관광사업과의 연계, 홍보 강화 방안, 그 정도를 조건으로 붙일까요? 괜찮습니까? 괜찮으신가요?

○ ○○○ 위원

- 궁금한 게 안전에 대한 부분은 제가 인지하지 못해서 혹시 이런 부분을 알 수 있는 게 있을까요?

○ ○○○ 위원

- 제가 조금만 말씀드리면 이미 투자 심사를 받아서 설계를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VE라든가 기본설계 기준으로 설계심의를 엇그제 저희 부서에서 했거든요.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이나 안전적인 부분은 관련 외부 엔지니어 전문가분들하고 같이 해서 조건부로 의결을 했습니다. 이것을 좀 더 보완을 하고, 아까 말씀하신 장애인 접근 같은 것들은 경사로를 데크로 다 이렇게 놓도록 지금 설계가 돼 있습니다.

○ ○○○ 위원

- 그러니까 그게 각도가 문제더라고요. 있는 것은 같은데. 모양으로는 있는데.

○ ○○○ 위원

- 그래서 일단은 건축물이 아니니까 배리어 프리까지는 아니지만 기본적인 리뷰는 한 상태고.  
또 조건을 큰 걸 붙여주시면 사실은 부서에서는 단계적인 선착장 확대까지도 이미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단 시범사업을 한 다음에 확대하겠다는 것이라서, 그렇게 되면 그 투자심사를 할 때 주신 의견들이 또 바탕이 돼서 계속 보완해 갈 수 있으니까 큰 틀에서 의견은 조건으로 붙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 그래서 일단 아까 말씀드린 정도 조건을 3가지 정도 일단,

○ ○○○ 위원

- 제가 자꾸 이런 말씀을 드려서 그런데, 들고 나는 것 이런 것을 효율적으로 하는 이런 걸 누가 검토하는 분이 계신가요? 이런 건축적인 면 말고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지하철이나 이런 데도 보면 뭔가 어떤 데 보면 효율적이지 않은 것, 구조 자체라든가 사람의 통행이,

○ ○○○ 위원

- 동선 말씀하시는 건가요?

○ ○○○ 위원

- 네, 동선. 그런 것들을 누가 검토하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만들어 놓기는 만들어 놓는데 이거 갈아타고 저거 갈아타고 하다 보면 진땀나고 너무나 품이 많이 드는 그런 것이 참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사람 입장에서 힘들거든요.

○ ○○○ 위원

- 그러니까 일반적인 시설 같은 경우에는 교통본부하고 협의해서 거기서 교통개선대책, 접근성, 배리어 프리 다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사실 건축물도 아니고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어차피 지금 설계심의라든가 이런 부분에 관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부서에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건을 붙여주시면 같이 또 조건을 포함해서.

○ 위원장

- 그럼 그 조건은 어떤 형태로 붙여야 될까요?

○ ○○○ 위원

- 그걸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냥 이용자 입장에서 봤을 때.

○ 위원장

- 이용자 편의. 이용자의 시설 이용 편의를 좀 더.

○ ○○○ 위원

- 네. 설계하시는 분은 하드웨어적인 데 신경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용자는 사실은 그것은 알아서 하셨겠거니 하고 우리는 얼마나 편안하냐.

○ ○○○ 위원

- 그 부분은 이게 사업이 선착장 조성이고, 동선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상 선착장하고 또 다른 하나의 추가된 사업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시민의 입장에서 어떻게 접근할 지에 대해서는 여러차례 시뮬레이션 및 검증을 했

고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그 부분을 줄일 수 있는지 고민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 ○○○ 위원  
- 고맙습니다.

○ ○○○ 위원  
- 이 사업에 대해 시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여러 부서가 검토하고 있고, 만약에 홍보도 하면 홍보도 어떤 방식을 해야 될지 그 포인트들을 잡아야 되니까 현장에 가보고, 교통도 마찬가지로. 그런 상황입니다.

○ ○○○ 위원  
- 그런데 그건 목적성의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보면 관광에 포커싱이 맞춰져 있는지, 아니면 트래픽에 포커싱이 맞춰지느냐에 따라서 홍보든 뭐든 그 나머지 이야기들이 다 되는데 지금 여기 보면 그 두 가지가 되게 상충하는 것 같아서 어떤 데서 추진을 하시는지.

○ ○○○ 위원  
- 이게 노선을 만들어 놓고 그냥 단순히 운영하는 게 아니라 급행노선 같은 경우는 건너뛰고 가는 것도 있고, 그런 것까지 운영 노선에 대해서 지금 다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출퇴근 시간에는 교통의 목적으로 하고, 그 외의 시간은 관광의 목적으로 한다거나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위원장  
- 그래도 나름 논의를 활발히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건부 추진하되 조건 3개로서 관광사업과의 연계, 홍보방안 강화, 그다음에 접근성 개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보완하도록.

○ ○○○ 위원  
- 그럼 다시 심사 받아야 되나요?

○ 위원장

- 그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정리하면 될까요?

○ 위원 다수

- 네.

○ 위원장

- 네, 그렇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3. (보고) 은평병원 현대화(리모델링) 사업계획 변경 보고

○ 위원장

- 이제 은평병원 현대화 사업계획 변경 보고가 있겠습니다.

은평병원 현대화(리모델링) 사업은 지난 2023년 제6차(8월)에 개최된 투자심사 결과 조건부 추진으로 통과되었는데 위원회에서 정신건강 컨트롤 타워 이전 필요성 및 운영주체, 공간활용 등 구체적인 운영 계획을 보완하여 2024년 1분기 내 투자심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보고자료 및 사업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제 사업부서 보고를 들으시면서 조금 더 잘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사업부서 입장 및 설명 )

○ 위원장

- 감사합니다. 아마 다 이해하셨을 것 같아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마약관리 센터가 들어오게 됨에 따라 기존에 계획을 했던 광역정신건강 그 센터는 다른 곳으로 지금 설치하는 게 맞죠?

○ 사업부서

- 네, 제3의 장소를 저희는 물색을 하는데요,

○ 위원장

- 아직 확정은 안 돼 있나요?



○ 사업부서

- 네, 확정은 안 돼 있는데 현재 서울의료원하고 명지대에서 운영을 꽤잘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그걸 현재 더 운영을 하고 빨리 장소를 물색하려고 하는 겁니다.

○ 위원장

- 그래서 지금 아마 주신 자료 6페이지에 보면 변경 전하고 변경 후 모습이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위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현재 마약환자는 서울시 차원에서 주로 케어를 해주는 병원이 어디인가요?

○ 사업부서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평병원 같은 경우에는 마약중독자 치료보호기관으로 '90년 7월 달에 이미 지정한 병원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마약관리센터로 이렇게 센터가 들어가지 않은 상황이지만 외래환자나 입원환자를 계속해서 봐 왔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정신과 영역에서 중독 부분에 있어서 알코올이나 게임, 도박중독 이렇게 다 해서 마약환자도 은평병원에서 계속해서 봐왔던 것이고, 그 기능을 좀 더 강화하고 체계화시켜서 마약관리센터를 만들어지고 상담, 치료, 재활, 사후관리까지 다 하겠다. 이렇게 해서 은평병원에 마약관리센터를 저희가 조성하려고 계획 수립하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 위원

- 그러면 그 조직도도 좀 달라지고, 인력 채용이나 이런 부분도 같이 따라가는 건가요?

○ 사업부서

- 네, 그런 부분도 저희가 계획해서 같이 맞물려서 계획하고 있고, 학술용역도 지금 심의 중에 있습니다.

○ 사업부서

- 마약을 전문적으로 치료하시는 의사분들이 별로 없어요.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 사업부서

- 저희가 은평병원 하기 전에 일단은 시립병원 내 어딘가에는 마약관리센터를 저희가 조성해야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보라매병원, 서울의료원, 그리고 은평병원, 세 군데 다 저희가 방문해서 이렇게 마약관리센터를 조성하고 싶다 이렇게 병원 의사를 타진했지만 세 병원 다 마약환자 치료하는 부분에 대해서 환자 자체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다 부담스러워하고, 또 공간이나 시설 면에서도 보라매나 서울의료원 같은 경우에도 어렵다고 해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지금 단계에서 마약중독환자 치료보호기관으로 지정되어 있고, 정신질환 전문의료기관이고, 정신건강의학과 수련병원이 은평병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책적으로 은평병원에다가 조성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 예를 들면 환자 수용 인원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 사업부서

- 저희가 지금은 외래환자들만 보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연인원으로 해서 313명 연인원을 저희가 은평병원에서 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마약관리센터가 조성되면 급성환자나 해독환자, 이렇게 입원이 가능한 입원병실을 10개 조성할 계획입니다.

○ ○○○ 위원

- 병상 수가 10개인가요?

○ 사업부서

- 네, 병상 수가 10개고요,

○ 사업부서

- 병상 수 10개에 남자 8개, 여자 2개.

○ 사업부서

- 단기입원을 시켜서 해독이나 그런 응급환자 처치나 이런 게 가능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 ○○○ 위원

- 전체 병상 수는 몇 병상이죠?

○ 사업부서

- 218병상입니다.

○ ○○○ 위원

- 그중에 한 10병상 정도가 마약 병상인 거죠?

○ 사업부서

- 네.

○ ○○○ 위원

- 설비는 다 돼 있으신 거예요? 디톡스는 이런 것은?

○ 사업부서

- 그런 부분도 저희가 학술용역을 통해서 서울형 마약중독센터 모델을 갖다가 지금 마련하려고 학술용역 심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단계를 해서 거기에 맞는 외국사례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다 조사하고 해서 일단 계획서에는 반영했고, 또 학술용역을 통해서 모델을 더 구체화시킬 계획입니다.

○ ○○○ 위원

- 사실 마약환자 같은 경우에 치료도 중요하지만 재활이 엄청나게 중요한데 지역의 통합중독센터랑 어떤 식으로 그 관계를,

○ 사업부서

- 그래서 저희가 병원 내 치료, 재활부분도 프로그램으로 준비하고 있고,

○ 사업부서

- 전체 면적의 한 20% 정도를 재활실로 지금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 위원

- 그러면 퇴원하거나 하면 지역하고 연계가 반드시 돼야 되잖아요.

○ 사업부서

-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학술용역에서 마련하도록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지역 연계 이런 부분을 다 고려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 혹시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신가요?

○ ○○○ 위원

- 지금 이 리모공개팅이 올해 6월에 설계가 준공이 되면 하반기에는 공사 들어가는 거죠?

○ 사업부서

- 설계가 준공이 되면요? 네, 바로 공사가 들어갑니다.

○ ○○○ 위원

- 2026년 1월이면 아마 내년 1년 정도 공사해서 바로 개원하실 것 같은데,

○ 사업부서

- 내후년이죠.

○ ○○○ 위원

- 그러니까 2026년에 운영하실 것 아니에요?

○ 사업부서

- 네.

○ ○○○ 위원

- 그럼 지금 거기에 있었던 정신건강 컨트롤타워는 아직 장소를 정하지 않으셨다고 그러는데 지금 하반기부터 운영 못할 것 아니에요?

○ 사업부서

- 정신건강 컨트롤타워는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분리돼 있는 정신건강센터랑 자살센터를 통합을 해서 은평병원에 원래 집어넣기로 했었는데 그냥 제3의 장소에 존치하기로.

○ ○○○ 위원

- 제가 여쭙보는 것은 지금 현재 공사하려고 하는 여기에 지금 현재 우선 운영하고 있잖아요.

○ 사업부서

- 네.

○ ○○○ 위원

- 그 센터는 사무실이에요. 광역센터 사무실이기 때문에 환자들을 받는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마 그냥 사무실 위치가 바뀌는 것이라,

○ 사업부서

- 네, 아마 은평병원에 가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은평병원이 굉장히 노후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시설물 12개 중에서 가장 노후하다고 할 정도로 좀 나쁘게 얘기하면 음침하다고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시설 개선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218억원을 들여서 전체적으로 하려는 겁니다.

그중에 정신건강 컨트롤타워가 원래는 들어가기로 했었는데 요새 마약이 너무 이슈화돼서요 급하게 시장님도 지시하고 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마약은 사실은 아시다시피 혐오시설로 돼 있다 보니까 주민들도 싫어하고 아까 말씀했지만 수많은 병원 자체도 싫어합니다, 시립병원 자체도. 그나마 은평병원에서 '저희들이 정신건강을 하니까 우리가 하겠다.' 그러면 그분들이 일반환자들하고 섞이면 안 되니까 별도의 출입구가 유일하게 3층으로 직통 계단이 연결돼 있어서 거기다 부득이하게 놓게 됐고.

어린이발달센터가 요새 어머니들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거기를 저희가 리모델링해서 거기 그냥 존치하면서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이렇게 된 겁니다.

○ 위원장

- 혹시 위원님들 추가로 질의 있으신가요?  
없으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사업은 아시는 것처럼 지난번 위원회에서 통과되었는데요 지금 변경사항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들여다볼 필요성이 있어서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된 것 같습니다.

사실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 이슈고, 또 위원님들 질문에서 나타난 것처럼 또 고려돼야 될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부서에서 어려우시겠지만 이런 부분들 충분히 고려해서서 향후 사업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 사업부서

- 수고하셨습니다.

( 사업부서 퇴장 )

○ 위원장

- 오늘 고생하셨는데요 금일 심사 결과 최종 정리하겠습니다.

2024년 수시(3월) 투자심사위원회 투자심사 안건 2건 중에 1건 첫 번째 안건은 적정. 그리고 두 번째 안건은 조건부 추진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 위원 일동

- 네.

○ 위원장

- 이상으로 금번 투자심사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일동 박수! )

【15시 55분, 폐회】